

목포권

목포 자유시장에 '문화 바람'

市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내년 6월까지 추진

국비 등 6억5천만원 투입...체험중심 문화콘텐츠 개발



목포시가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 문화공간이자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기반을 둔 체험중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인과 함께하는 사업(12개) ▲예술인과 함께하는 사업(7개) ▲홍보사업(5개)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며, 목포 자유시장이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능적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향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신안 임자도 '새우젓' 옛 명성 찾는다

郡, 전장포 복원사업 10억 투입...어업기반 시설 등 확충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 방울 이리 많은지/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곽재구 시 '전장포 아리랑' 중)

같은 날 냉장시절 ▲수산물 판매장 등을 건립한다. 547㎡ 규모의 수산물판매장 1층은 수산물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2층은 주민복지시설로 이용된다.

분산 생산·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복원사업을 계기로 옛명성을 되살리고 전장포에서 직거래 생산·판매로 활기를 되찾아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컴퓨터는 기본" 어르신들 정보화교실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이 최근 면사무소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다. 진도 조도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컴퓨터의 기본이해 단계부터 '눈높이 주민정보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통통마디 빨나방' 신안서 첫 발견

함초 잎 갇아먹어 재배단지 15억원 피해...확대될 듯



바닷가 염전주위나 빨밭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함초(일명 통통마디)잎을 갇아먹는 해충이 신안에서 첫 발견됐다.

갇아먹으면서 줄기에 거미줄을 치며, 검은색 물질을 배설해 함초에 피해를 끼친다. 군은 현재 신안지역 함초 재배단지 빨나방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 천일염 'ISO' 인증
술شم식품, 식품·환경 획득

신안군 천일염 가공업체인 술شم식품이 국제 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했다. 신안 지도읍에 분사를 둔 술شم식품이 최근 받은 인증은 식품 위해요소...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 분청사기' 日서 전시회

8~13일 후쿠오카서 100여점 선보여

'무안 분청사기 전시회'가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오이시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무안 분청합회에서 제작한 한국적 풍토성을 잘 표현한 분청사기 100여 점이 선보인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서해해경 - 中영사사무소 간담회

中 어선 불법어업 근절 대응 가능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중국영사사무소 염봉란 총영사 등 3명을 초청, 상호 업무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해 해경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종 상황 발생시 광주영사사무소를 중국측 공식 연락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011-602-2532
(광주)영일 신본영, 대인동 소방사건(본)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경매 취부동산 매매 전문
금호부동산컨설턴트
224-5959 010-2831-1733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물 중개 전문)

경매전문회사
주호남경매컨설팅
무료 ☎ 062)228-6600
상담 H.P 010-5616-8988